

# 몇 개의 고쳐 쓰기 작업

Several  
remodeling works

앞 세대의 존재 흔적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들의 단초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안목, 긍정의 힘이다. 장소가 생겨나고 존재해왔던 그 이야기를 공감하고 기억하는 것, 진정성이다. 기억들이 기록들로 각화(刻畵)된 계획 대지. 그것을 우리는 사이트(SITE)라 말한다. 내재한 수많은 시어(詩語)들을 찾아내고 읽어내어 재조합한다. 이성적 구축 논리를 감성으로 서사한다.

고쳐 쓴다는 것, 바꿔 쓰고 덧대 쓰는 것.  
기억을 공유한다는 뜻, 본래의 쓰임새를 애정한다는 뜻이다.  
날선 각들은 시간 속에 무너지고 윤색된 표면들은 풍우에 순화된다.  
시간은, 우리가 만든 모든 인공들을 자연으로 동화시킨다.

오래된 것은 왠지 낯설다. 그래서 새롭다.  
보편화된 시대 일상. 치장은 지워지고 감출 허세도 없다. 관용으로 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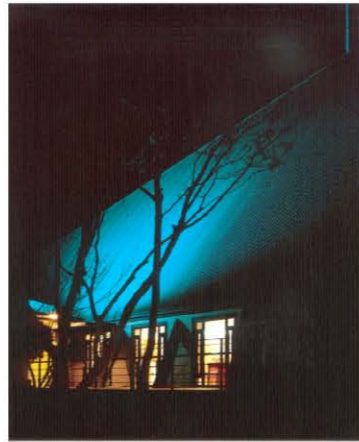
쌓아서 지을 수 있는 높이들의 집들과 전차가 다닐 수 있는 삶의 스피드.  
사람보다 오래 산 나무들과 집들이 나를 기억하는 도시.  
내가 꿈꾸는 도시.

재생건축, 어딘지 모르게 조금 불편한 어감.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듯하다. 사회적으로 과장되어 있고 형식과 의미를 규정하려 강박하고 있는 듯하다. 고쳐 쓴다는 표현이 편할 수밖에 없는 소이언이다. 상황과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작업 대상들. 모두들 각자의 인격을 가진 장소로서 의인화 된다. 점유방식, 사용방식, 시대마다 가진 고유의 구축정신이 있다. 때론 그 낯설을 주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부여받는다. 행운이다. 기회들을 통해 마주한 나름의 생각들을 작업 경험을 통해 나열해 본다.

글. 허서구  
Huh, Seogoo  
허서구 건축사무소

## 잠사박물관 1988

도로보다 낮은 기존 공장부지는 철길에서 강변으로 흐르는 땅들의 높이와 관계를 수용하고 영역들을 매개한다. 80년대 말에 가동을 멈춘 우리 산업시대의 마지막 잠사공장. 아신역에서 부터 남한강변까지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 준다. 땅들은 높아지고, 주변 맥락을 조절할 새로운 바닥판들이 결합된다. 지붕이 소거되면서 외부공간이 내부공간이 되고 내부공간이 외부공간이 된다. 벽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전도되는 역공간이 형성된다.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질서를 밟아가면서, 인식의 옷들을 뒤집어 입는다. 기억을 읽어 내는 것, 바라보는 눈의 애정에 의한 것, 장소는 시간을 담아두게 되고 시간은 기억으로 저장된다. 벽으로부터, 벽들로부터, 벽들의 사이에서, 벽들의 안과 밖에서, 벽속의 우물로부터 60년대의 복고적 향수를 길어 올린다. 시간 속에서 중첩되며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배치 질서를 새로운 질서의 구축 재료로 용용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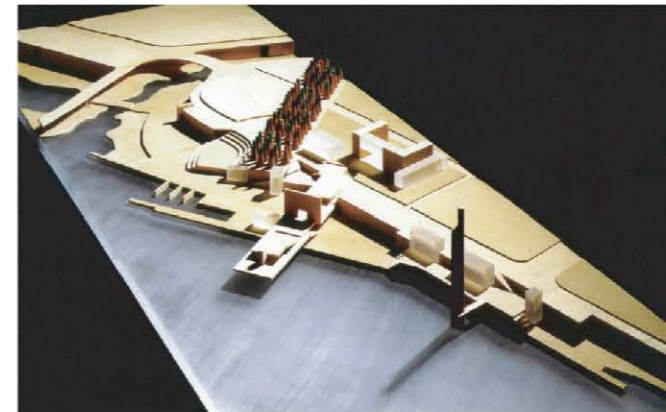


잠사박물관

## 강변연가 1999

집들은 나무보다 빨리 자라고 도시는 숲보다 빨리 커진다. 기억할 과거를 잃어가는 땅, 사람보다 오래 산 나무를 찾기 힘든 땅, 우리가 정주할 풍경의 무게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강토가 기품을 잃어버렸다. 시간의 무게를 가늠할 것들을 찾기 힘들다. 팔당댐은 이제 양평읍이라는 소도시가 끌어안아야 할 숙명이 되어 버렸다. 먹는

물, 보는 물, 그리고 넘치는 물. 갈등의 모든 것이 팔당댐을 원인으로 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달리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넘치는 물로 인한 강변의 제방은 강변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닫아 버렸다. 관계를 끊어 버렸다. 시가지보다 높아진 제방은 그보다 더 높은 철길과 평행하다. 도시는 그 사이에 끼워져 몸부림을 치고 있다. 철길은 철길대로 일정하게 달려야 할 높이가 있고, 제방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져야 할 일정 높이를 거부하진 못하였을 것이다. 도시보다 높은 두 개의 수평레벨 사이에서 땅들은 자기 모습과 레벨을 가지기 위해서 혼돈하고 있다. 관계를 회복하고, 끊어진 길들을 강으로 다시 연결할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 도시가 부를 강변연가이다.



강변연가

## 선정릉 2006

경계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인식은 경계선이라고 하는 선형성일 것이다. 주변에서 늘 보는 철망이나 담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영역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경계는 중심에서 가장 멀리 방치되어지는 marginal한 주변 요소로 전락된다. 스스로 자폐 된다. 역사 공간으로서의 선정릉, 도심공원으로서의 선정릉은 우리 도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듯이, 소극적 방어 형태의 철망으로 둘러쳐져 있다. 지형이 다르고 주변 상황이 다르다. 도시 감성의 내면적 복잡성을 다양하게 엮어내야 하는 절실한 요구를 표정 없이 목살한 채 철망으로 태연하다. 안도 우습고 바깥도 우스꽝스럽다. 스스로 존재를 비하하고 있다. 경계 구조는 시공간적 단절 영역이 아니라 반응하며 성장하는 유기적 영역이다. 역사 공간과 도시 영역이 상호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미 死 공간화된 영역

들, 그 불합리한 틈새의 불연속면을 주목한다. 장소의 변형과 창조를 통해 역사 공간으로서, 도심공원으로서의 선정릉이 가진 잠재력을 친숙한 몇 가지의 상상력으로 건축화 시켜본다. 영역화 시켜본다.



선정릉

## 경기도 용벽주변 2010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되는 인공대지의 불연속면을 단지 어색하거나 불합리한 구조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생산적인 도구로 인식한다. 도심의 끊어진 길들, 관계 회복을 통한 가로공원을 조성한다. 용벽 내부를 공간화하여 휴당어리를 공간으로 치환한다. 틈을 공간화하여 장소를 회복한다. 용벽으로 단절된 보행로와 차도가 아랫길을 통하여 가로 친화적 높이를 가지면서 내부 공간은 프로그램화되고 인도를 가진 도시 가로 구조로 전환된다. 통학로와 보행로가 결합이 되어 가로 광장이 되고 그 하부에 내부 공간이 형성된다. 은행나무 길, 학교 가는 길, 도시적 감성으로 복원된다. 기존의 지형 질서에 순응되면서 지형 위에 표출된 동선 궤적의 선형적 결합. 대상 부지의 형상을 구축한다. 극단적 긴장감으로 선형성의 미학을 내포한다.



경기도 용벽주변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2018

1층 외벽들을 한 켠 물러 세우며 외부 회랑으로 전환시킨다. 기존의 시설 군들을 하나로 통합한다. 외벽은 바깥 켠의 외피로 남는다. 안 켠 외벽이 자유로워지

기 위한 켜이자 수장 영역을 형성하기 위한 구조로 강화시킨다. 안 켜는 점점 단 단해지고 바깥 켜는 점점 가벼워진다. 도시의 기억과 역사의 함축, 외피는 또 다 른 세월을 담아내며 풍화되어 간다. 담장 밖으로 소통하지 못하였던 낯설, 익숙 지 않은 새로움이다. 낯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다. 시대가 가진 고유의 건축정 신, 기동으로 표현되는 엄정한 구조열 공간이 가진 한계가 다른 장소가 가질 수 없는 강건함이다. 보존을 얼마만큼 하는가. 무엇을 보존하는가. 이에 대한 선택 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쓸 만큼 쓰고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과정, 그 결과로 이 해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공간적 기능이 창의적으로 해석되고 합리 적으로 반영되는 디자인 과정의 최종 성과물이다. 표피에 대한 문제는 더욱 아니 다. 새롭게 바꾼다거나, 반대로 고집스럽게 남기려는 시도 또한 형태에 대한 집착 과 다름 아니다. 보존한다는 것,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 문화비축기지 2017

하나의 장소, 하나의 공간이 시대와 사건을 연결한다. 40년, 그리 길지도 않다. 이끼가 돌아있고 오동나무 거목이 뚫고 나와 공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녹슬어 가는 탱크와 주변 시설물. 높은 옹벽과 좁은 통로, 깊은 틈새와 구덩이. 구조물의 중량감과 그 물성들의 거칠음. 시간은 인간이 만든 모든 인공물들을 자연으로 동 화시킨다. 자연이 있었기에 수국이 가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니 뜻 밖이다. 구덩이 속에 옹도 폐기된 채 산화되어가던 기름 탱크가 문화시설로, 저장 기능에서 생성 기능으로, 단순 구조물이 복합 건축물로 전환되는 과정. 감동은 예 측 못할 반전과 격한 공감의 동반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장소가 만들어지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재현해낸다. 문화비축기지 구축과정은 발 굴 과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묻혀있던 구축 과정의 발굴을 통해 새로이 들

어서야 할 계획의 방향이 정당화된다. 찾아냄이 시작이며 나타나게 함이 종결이 다. 문화비축기지 구축 과정은 석유비축기지 구축 과정의 역순의 과정으로 진행 된다.



문화비축기지



허서구 허서구 건축사사무소·건축사

한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the Berlage Institute에서 수학하였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교수, 원도시건축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허서구 건축사무소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한솔진, 국립현 대미술관 청주관, 문화비축기지 등의 작품이 있으며, 한국건축 가협회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서울시건축상 등을 수상하였다.

seogoo49@hanmail.net

## 과거 드러내고 현재 덧붙이고, 옛 건물에 새 숨을

Reveal the past, add the present, and infuse new life into the old building

글. 박종호

Park, Jongho

유민 건축사사무소 <진라남도건축사회>

우리 주변의 도시는 활력이 넘친다. 구(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각각의 방식으로 활력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신도심에는 부동산의 논리에 맞춰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나를 알고자 하는 광고판의 번쩍거림. 도시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 다. 구(원)도심 또한 십수 년 전부터 신도심에 빼앗겨버린 화려한 번영을 되찾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도심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오랜 만의 귀향길에 바뀌어버린 도시에 놀라곤 한다. 도시는 이렇듯 시간이 흐르며 하 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도시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현행 건축법은 도시를 가로의 폭으로 건축물의 규모나 스케일을 정하곤 하 였다. 물론 관련 법령이 조금씩 달라짐은 있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다.

이곳 도시에서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그 부동산의 가치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 우리는 도시공간에서 마주하게 되 는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와 인간적인 모습이 없음을 탓한다. 도시가 토해내는 쓰 레기와 공해, 주차난 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갖고 있 는 도시지만 우리는 도시를 사랑한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가끔은 인간적이지 못해 싫다가도 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도시가 주는 불편함 그 이상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을 타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집에 대한 역사와 기억들이 사라지는 아쉬움 은 어쩔 수 없다

필자는 대학원 시절부터 근대건축물들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 대건축물 뿐만 아니라 60, 70년대에 양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들 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건축물의 현장답사나 조사, 실측이라도 할 경우에는 보물놀이라도 하듯 재미있었다.

몇 년 전에 멈춘 듯한 오래된 달력에 새겨진 동그라미는 어떤 날이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건축물과 소품들을 볼 때마다 집에 대한 역사와 기억들 이 사라진다는 것이 맘이 아프기도 했던 것 같다. 광주의 양림동 같은 경우도 그 런 이유였다.

졸업논문엔 광주 최초의 선교지역이었던 100여 년 전의 근대건축물들이 등록문 화재로 지정되고 그 밖의 건축물들이 유실되고 사라지는 시점을 기억하고 싶었 다. 남기고 싶었다. 그렇게 나의 도시와 마을에 대한 과거를 찾고 싶었다.

2007년부터이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계획도 없었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있는지도 몰랐다. 양림동의 100여 년 전의 선교